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2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정보통신정책과장 강명수(02-2110-4801), 사무관 최혜진(4796)

1월 IT수출 111.8억불, IT수지는 49.3억불 흑자

– 설 연휴 조업 단축, 주요 품목의 단가 하락 등으로 IT수출 111.8억불(△12.8%), 수입 62.5억불(△10.4%), 수지 49.3억불 흑자 기록

□ **1월 I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8% 감소한 111.8억불, 수입은 10.4% 감소한 62.5억불, 수지는 49.3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유럽發 재정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수출증가세 둔화로 1월 전체 무역수지는 적자(△19.6억불)를 기록했으나, **IT수지는 지속적인 흑자**(49.3억불)를 창출하여 **전체 수지에 기여**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IT산업			전체산업		
	'11.11	'11.12	'12.1	'11.11	'11.12	'12.1
수 출	129.4	126.0	111.8	460.5	489.2	415.4
증감률	(△4.8)	(△3.4)	(△12.8)	(11.6)	(10.8)	(△6.6)
수 입	68.1	66.6	62.5	430.1	455.2	434.9
증감률	(△2.8)	(△3.9)	(△10.4)	(11.2)	(13.6)	(3.6)
수 지	61.3	59.4	49.3	30.5	34.0	△19.6

□ **(수출)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1일), **주력 품목의 단가 개선 지연**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2.8% 감소**한 **111.8억불** 기록

* DRAM 가격(달러) : ('11.1) 1.91 → ('12.1) 0.88, △53.8%
* 낸드플래시 가격(달러) : ('11.1) 5.38 → ('12.1) 3.28, △39.0%
* LCD TV용 패널 가격(달러) : ('11.1) 279.0 → ('12.1) 217.8, △21.9%

○ **(품목별)**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휴대폰 등 품목별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반도체 : 37.7억불,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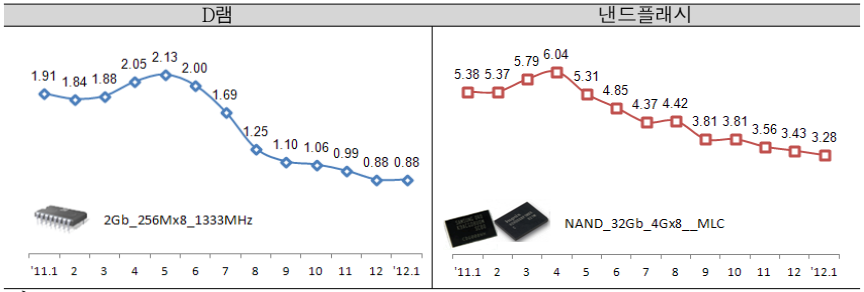
- (시스템반도체 : 18.5억불, 33.4%↑) HW+SW 융합형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는 **29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 기록

* 세계시장점유율(%) : ('09) 2.4→ ('10) 2.8→ ('11.1Q) 3.3→ (2Q) 3.5→ (3Q) 4.1
* 수출증가율(%) : ('09) △6.4→ ('10) 30.9→ ('11.상) 18.3→ (하) 28.5→ ('12.1) 33.4

- (메모리반도체 : 14.7억불, △32.5%) **단가 개선 지연**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 시장점유율은 상승세**

*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률(%, 전년 동월대비) : (D램) △53.8, (낸드) △39.0
* D램 세계시장점유율 : ('09) 55.4%→('10) 59.0%→('11.1Q) 62.9%→(2Q) 65.2%→(3Q) 66.7%
* 해외 업체 영업이익('11.4Q) : Elpida △706억원, Micron △922억원, Nanya △3,469억원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자료 : DRAMeXchange, 2012.1

【컴퓨터 및 주변기기 : 6.0억불, 4.7%↑**】**

- (컴퓨터 및 부품 : 2.0억불, 42.1%↑) **태블릿PC, 초슬림노트북 등의 수출 호조**로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

* 태블릿PC 세계시장점유율(SA, %) : ('10) 8.5 → ('11.1–3분기) 9.4, "세계 2위"

- (프린터·모니터 등 주변기기 : 4.0억불, △4.4%) 모니터(1.4억불, △9.1%) 및 프린터(1.0억불, △10.5%) 수출은 감소했으나, **SDD**(1.1억불, 152%↑) 등 **차세대 저장장치 수출은 크게 증가**

【디스플레이 패널 : 22.7억불, △11.2%】

-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 11.0억불, △17.5%) 단가 하락과 선진국 LCD TV 보급률 포화에 따른 **세계 TV시장 정체**로 수출 감소

  * LCD TV용 패널(CCFL) 가격(달러) : ('11.1) 279.0 → ('12.1) 217.8, △21.9%
  * LCD TV용 패널(LED) 가격(달러) : ('11.1) 372.5 → ('12.1) 342.5, △8.1%
  * 선진시장 평판TV 보급률(DisplaySearch, %, '11) : (일본) 146, (북미) 141, (유럽) 117
  * LCD 패널 세계시장점유율(DisplaySearch, %) : ('09) 52.7→('10) 51.3→('11.1Q) 51.1→(2Q) 54.0→(3Q) 53.6

- (모바일용 패널 : 0.6억불, 221%↑) 글로벌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와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거점向 수출 물량 증가로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모바일용 패널 수출증가율(%) : ('11.8) 22.1→(9) 54.3→(10) 230→(11) 127→(12) 314→('12.1) 221

- (패널부분품 : 2.8억불, 2.4%↑) LCD BLU(Back Light Unit)의 對중국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

【휴대폰 : 14.4억불,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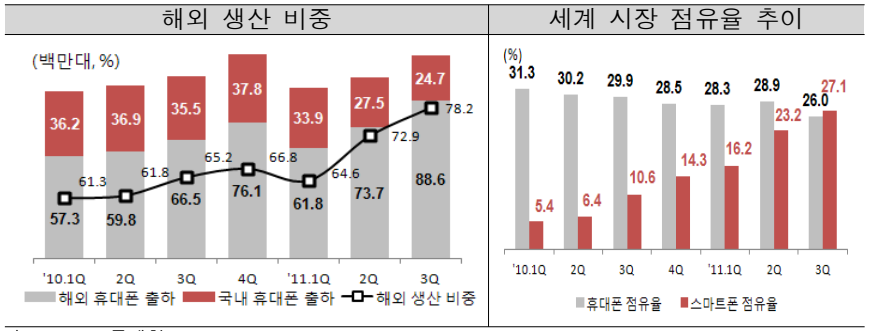
-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세계 출하량 및 세계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휴대폰 세계 출하량(억대, SA) : ('11.1Q) 1.0, 2.4%↑→ (2Q) 1.0, 4.7%↑ → (3Q) 1.1, 11.1%↑→ (4Q^e) 1.1~1.2, 1~2%↑
  * 세계 시장점유율(%, SA) : ('11.1Q) 26.9, "세계 2위"→ (2Q) 28.3 "세계 1위 진입" → (3Q) 28.9→ (4Q^e) 26% 이상, "3분기 연속 세계 1위(출하량기준) 예상"

-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휴대폰 생산 대수 감소로 **수출은 급감**

  *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신속한 현지 수요 대응, 가격경쟁력 제고 등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해외 생산 비중(%) : ('11.1Q) 61.8 → (2Q) 72.9 → (3Q) 78.2 → (4Q^e) 78 내외, '11.4Q 해외생산비중은 전년대비 1~2%p 증가한 반면, 국내생산 대수는 32% 감소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및 세계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 SA, 통계청, NIPA, 2012.01

휴대폰 생산 및 수출 대수 추이

(단위 : 백만 대, %)

구분	'11.3	4	5	6	7	8	9	10	11	12
생산	10.4 (△15.7)	8.9 (△33.9)	9.3 (△21.3)	9.2 (△20.5)	8.7 (△29.8)	7.8 (△33.6)	8.1 (△28.4)	9.4 (△31.6)	8.3 (△34.6)	8.2 (△28.6)
수출	9.2 (△12.9)	7.9 (△35.0)	7.4 (△28.6)	7.1 (△27.0)	7.1 (△30.4)	6.0 (△34.7)	6.5 (△33.6)	7.8 (△34.9)	6.8 (△38.0)	6.7 (△30.9)

자료 : 통계청, 2012.01

【TV : 4.7억불, △25.9%】

- (TV완제품 : 0.8억불, 7.9%↑) **3D TV, 스마트TV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TV완제품 수출 증가**

- (TV부분품 : 3.9억불, △30.7%) 중국, 인도, 폴란드 등 해외 주요 생산거점向 TV부분품 수출 둔화

  * LCD TV의 해외 생산 비중('11.1-3Q) : 92.6 %
  * 해외 주요 TV 생산거점向 수출 증감률(%) : 중국(홍콩) △49.0%, 멕시코(△21.6%), 폴란드(△55.1%), 헝가리(△2.0%), 인도(△57.5%)

○ **(국가별)** 중국(홍콩포함, 55.0억불, △3.0%), 일본(7.4억불, △6.6%), 미국(12.1억불, △13.7%) 등 주요 국가의 수출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對EU**(8.5억불, △33.6%) **수출이 크게 감소**

'12년 1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체		37.7 (△8.0)	22.7 (△11.2)	14.4 (△39.3)	111.8 (△12.8)
	중국(홍콩포함)	20.4 (△6.4)	17.3 (3.7)	3.2 (△26.4)	55.0 (△3.0)
	미국	2.4 (△10.9)	0.1 (△48.5)	5.1 (△27.5)	12.1 (△13.7)
	일본	2.1 (△23.9)	0.2 (△72.0)	3.0 (36.8)	7.4 (△6.6)
	EU	1.2 (△51.1)	2.6 (△14.2)	1.2 (△61.5)	8.5 (△33.6)

□ **(수입)**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0.4% 감소한 62.5억불**

○ **휴대폰**(2.4억불, △59.6%), **컴퓨터 및 주변기기**(7.4억불, △17.7%)는 국내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수입이 크게 감소**

○ 국내 통신망 투자 확대로 **네트워크장비**(2.6억불, 26.9%↑) **수입이 증가**하였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수요 및 파운드리, 패키징 물량 증가로 **시스템반도체**(16.6억불, 2.0%↑) **수입 증가**

□ **(향후 전망)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메모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가격이 회복되는 등 **IT 업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및 **휴대폰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등 **IT수출 증가에 제약**으로 작용할 요인이 상존하나,

○ **'12년 국내 IT산업**은 **스마트폰, 시스템반도체 등 HW+SW 융합형 제품의 성장**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수출 1,630억불**('11년 1,570억불 대비 3.8%↑)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붙임 : 세부자료 >

<세부자료 >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7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31

3. 수입 및 수지 동향 34

4. 2012년 1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36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 스마트폰이 휴대폰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LTE 스마트폰, 신흥시장은 보급형 스마트폰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

○ **(스마트폰 성장 지속)** 올해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6.2억 대(29.6%↑), 매출액 기준 1,867억 달러(13.8%↑)를 기록하며 휴대폰 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 지속

- 피처폰은 출하량 기준 10.1억 대(△4.5%), 매출액 기준 579억 달러(△21.3%)로 '11년 이어 역성장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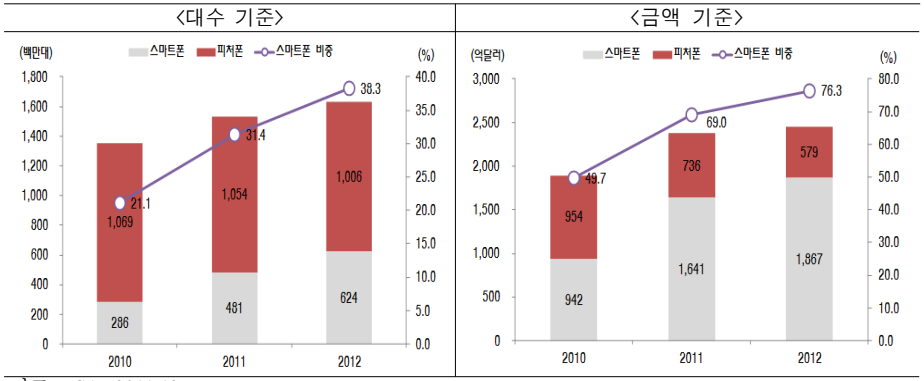
- 스마트폰 비중은 대수 기준으로 38.3%, 금액 기준으로 76.3%를 차지할 전망

※ 스마트폰 비중(대수 기준) : ('10) 21.1% → ('11) 31.4% → ('12) 38.3%

※ 스마트폰 비중(금액 기준) : ('10) 49.7% → ('11) 69.0% → ('12) 76.3%

- 전체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피처폰의 부진으로 16.3억 대(6.2%↑), 2,446억 달러(2.9%↑) 규모를 형성할 전망

스마트폰/피처폰 시장 전망



자료 : SA, 2011.12

○ **(선진 시장 : LTE 스마트폰 보급 확대)** 주요국 통신 사업자들이 차세대 통신망인 LTE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LTE 스마트폰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

- 세계 휴대폰 기업들이 CES 2012에 최신 4G LTE폰을 대거 선보이면서, LTE폰이 글로벌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급부상

※ LTE 스마트폰 시장 전망(SA) : ('11년) 820만 대 → ('12년) 3,160만 대, 286%↑

- 특히, 선진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는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17%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요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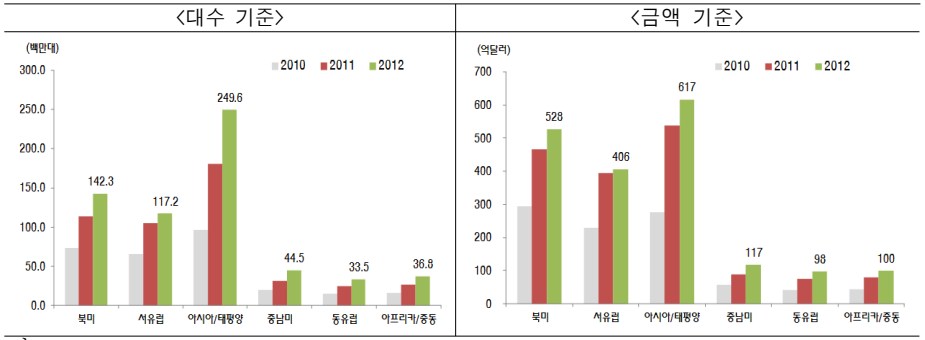
○ **(신흥시장 : 보급형 스마트폰 성장)** 200달러 미만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점차 확대

- 북미(1.4억 대, 528억 달러), 서유럽(1.2억 대, 406억 달러) 등 선진시장의 고가 스마트폰 시장은 대수 및 금액기준 모두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하락할 전망

※ 스마트폰 비중('12년, 대수 기준) : 북미(22.8%, 0.8%p↓), 서유럽(18.8%, 3.0%p↓)

- 반면, 아시아/태평양(2.5억 대, 617억 달러)을 중심으로 중남미(0.4억 대, 117억 달러), 동유럽(0.3억 대, 98억 달러), 아프리카/중동(0.4억 대, 100억 달러) 등 신흥시장은 3G 보급과 맞물려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

지역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자료 : SA, 2011.12

2) 수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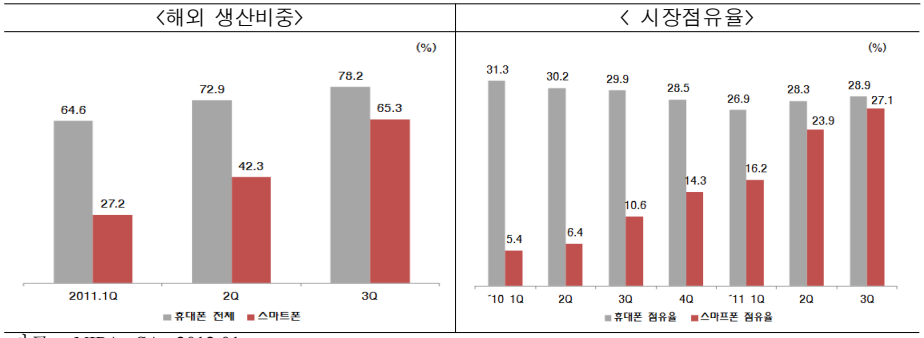
▶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개화함에 따라 신속한 시장 대응이 국내 업체의 현안으로 대두

○ 애플,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Time- to -Market 등 신속한 수요 물량 확보, 가격경쟁력 제고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노키아, 애플, 모토로라 등 해외 경쟁사는 90% 이상을 해외 및 외주를 통해서 생산

○ '11년 3분기 기준, 국내 업체의 전체 휴대폰 해외 생산비중은 78%(11.3Q) 수준이며, 동기간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비중도 65.3%에 이른 것으로 추산

국내 업체의 휴대폰 해외 생산비중 및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 NIPA, SA, 2012.01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휴대폰 생산과 수출 대수는 '11.1월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국내 업체의 글로벌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

국내 휴대폰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대,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생산	12.8 (△2.1)	10.8 (△0.9)	10.4 (△15.7)	8.9 (△33.9)	9.3 (△21.3)	9.2 (△20.5)	8.7 (△29.8)	7.8 (△33.6)	8.1 (△28.4)	9.4 (△31.6)	8.3 (△34.6)	8.2 (△28.6)
수출	10.9 (1.1)	9.6 (3.1)	9.2 (△12.9)	7.9 (△35.0)	7.4 (△28.6)	7.1 (△27.0)	7.1 (△30.4)	6.0 (△34.7)	6.5 (△33.6)	7.8 (△34.9)	6.8 (△38.0)	6.7 (△30.9)

자료 : 통계청, 2012.01

3) 수출 동향

▶ 1월 휴대폰(14.4억 달러, △39.3%) 수출은 국내 업체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해외 생산 확대가 지속되면서 5개월 연속 감소

○ 스마트폰(8.1억 달러, △19.3%)과 피처폰(1.3억 달러, △70.0%) 모두 부진

※ 삼성전자(중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LG전자(중국, 브라질), 팬택(중국) 등 국내 업체는 모두 해외 현지 생산 체제를 가동 중

▶ (지역별) 일본(3.0억 달러, 36.8%↑)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된 반면, 휴대폰 부품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홍콩 포함, 3.2억 달러, △26.4%)과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한 우회 수출 비중이 확대된 미국(5.1억 달러, △27.5%), EU(1.2억 달러, △61.5%) 등 선진시장은 부진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휴대폰 (부분품 포함)	23.7 (11.7)	19.8 (5.5)	21.6 (5.6)	23.1 (31.4)	24.4 (38.7)	22.1 (17.7)	21.7 (15.0)	20.7 (10.0)	20.4 (△3.5)	19.1 (△28.0)	18.8 (△29.9)	15.1 (△32.5)	14.4 (△39.3)
스마트폰	10.1 (237.4)	9.9 (174.1)	9.3 (154.1)	12.8 (391.9)	13.3 (304.0)	10.7 (97.6)	8.3 (45.3)	7.4 (9.2)	9.1 (3.3)	9.9 (△14.0)	10.5 (△16.7)	7.9 (△29.2)	8.1 (△19.3)
피처폰	4.3 (△46.6)	3.2 (△56.2)	3.3 (△62.4)	2.6 (△68.0)	2.9 (△55.0)	2.9 (△56.0)	2.5 (△53.7)	1.7 (△59.2)	1.9 (△49.0)	2.5 (△60.0)	2.1 (△64.5)	1.8 (△56.9)	1.3 (△70.0)
부분품	9.3 (△8.3)	6.7 (△15.0)	9.1 (11.1)	7.7 (12.4)	8.2 (5.2)	8.6 (25.5)	10.9 (41.4)	11.6 (47.8)	9.3 (9.2)	6.7 (△23.8)	6.2 (△25.6)	5.4 (△23.3)	5.0 (△46.6)

2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201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유로존(재정위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성장한 3,088억 달러에 그칠 전망

○ 통신 분야(822.0억 달러)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5.2% 성장할 전망이나, TV 등 가전 분야(464.2억 달러)는 0.9% 감소하고, PC·서버 등 정보처리 분야(1,262.0억 달러)는 2.0% 성장에 그칠 전망

※ 반도체 수요분야별 비중('12년, %) : 정보처리 40.9, 통신 26.6, 가전 15.0, 산업 8.7, 자동차 7.7

○ (메모리반도체)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과 PC 시장의 부진지속과 이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 등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면서 시장 조사기관별(-5%~8%)로 전망치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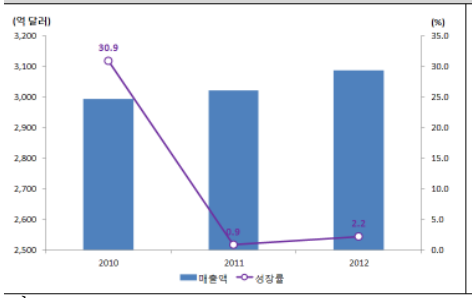
- 메모리반도체는 PC 시장에서의 수요 부진을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의 수요가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성장률이 결정될 전망

○ (시스템반도체) 울트라북, 서버 등 정보기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 소요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4%대의 완만한 성장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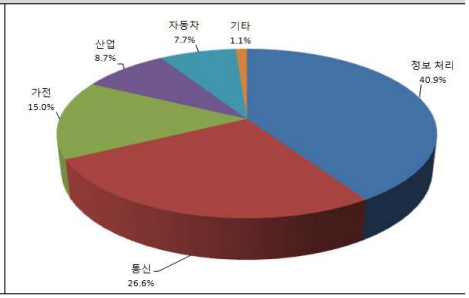
-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지배력 강화,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수요 분야별 비중('12년)



자료 : Gartner, 2011.12

▶ 2011년 4분기, 삼성 제외한 반도체 기업 모두 '적자'

○ 삼성반도체는 2011년 4분기 2조 3,100억 원의 흑자(전년동기대비 29%↑)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5% 기록

※ 올해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 15조 원을 투자하여 시장점유율 1위 입지를 강화할 방침

○ 반면 하이닉스는 1,674억 원, Micron은 922억 원, Elpida는 706억 원 그리고 Nanya는 3,469억 원의 적자를 기록

- 이로 인해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 업체는 대규모 감산에 돌입

※ Elpida, Nanya 등 해외 경쟁사는 국내업체와 달리 '11.4분기 이후 대규모 감산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투자를 47~60%까지 축소해 반도체 공급은 제한적일 전망

2011년 세계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원화 기준)

(단위 : 원)

	2011. 1Q	2011. 2Q	2011. 3Q	2011. 4Q	2011년 영업이익
삼성전자	1조 6,400억	1조 7,900억	1조 5,900억	2조 3,100억	7조 3,400억
하이닉스	3,230억	4,470억	-2,770억	-1,674억	3,256억
Micron	2,012억	2,664억	-573억	-922억	3,180억
Elpida	-760억	-556억	-6,540억	-706억	-8,362억
Nanya	-2,886억	-2,451억	-3,772억	-3,469억	-1조 2,528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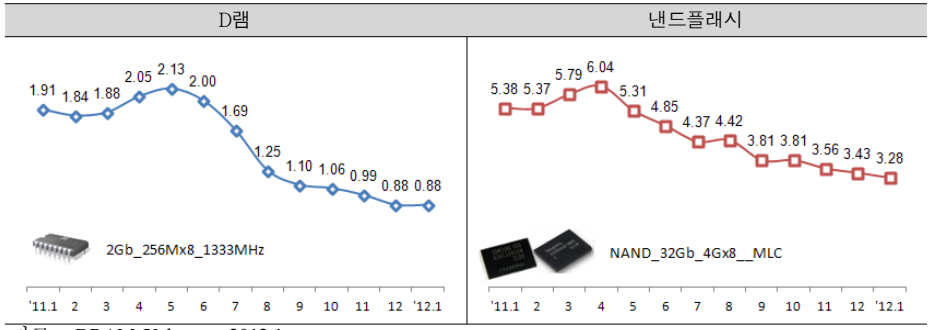
2) 수출 여건

▶ 선진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PC 시장 위축으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가격은 '11년 하반기 큰 폭으로 하락 한 후 정체(D램), 소폭 감소(낸드플래시) 지속

○ 메모리반도체 공급과잉 상태에서 발생한 태국 홍수 여파로 HDD 출하량 감소와 이에 따른 PC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DDR3 2Gb 256M×8 1333㎒ 고정거래가격은 0.88달러에서 횡보

○ 낸드플래시 가격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중심의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지속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자료 : DRAMeXchange, 2012.1

▶ 2012년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시장 지배력 강화', '시스템반도체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미세공정 전환 확대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그래픽·서버용 D램(Specialty 제품)과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든 낸드플래시 시장 공략에 집중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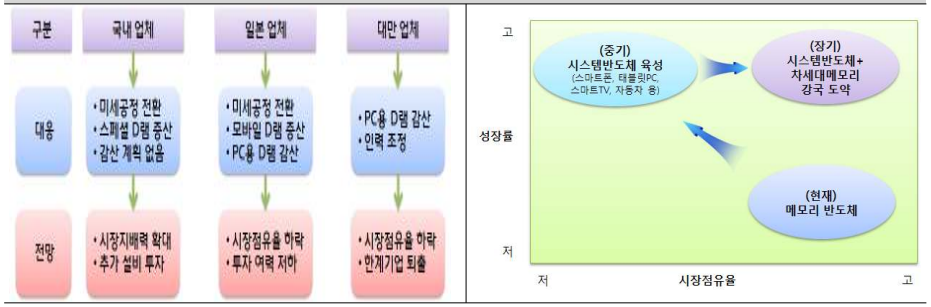
- 삼성전자가 20나노급 공정에서 D램을 양산하고 있으며 하이닉스도 2012년 초 20나노급 공정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할 예정

○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 CIS, DDI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IDM)하고 컨슈머 디바이스용·자동차용·아날로그 등(→팹리스)으로 제품의 외연을 확대할 전망

-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산업구조가 메모리 위주에서 시스템반도체 등으로 다변화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기대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급속한 성장으로 CPU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 단일품목 최대 시장으로 부상 중인 AP 시장 경쟁력 강화(속도개선+3차원(3D)기능+인식기술)에 초점을 맞출 전망

국내 반도체 산업의 향후 진로



3) 수출 동향

▶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0% 감소한 37.7억 달러

○ HW+SW 융합형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18.5억 달러, 33.4%↑)는 29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를 기록

-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와 주요기업의 파운드리 수출 증가로 시스템반도체는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록

○ 메모리반도체(14.7억 달러, △32.5%)의 단가 개선 지연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률(%, 전년 동월대비) : (D램) △53.8, (낸드) △39.0

- D램(8.0억 달러, △30.8%)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으나, 국내 업체는 모바일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확대를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유지할 전망

- 낸드플래시(1.9억 달러, △22.1%)는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반도체	40.9 (24.0)	36.5 (9.2)	44.7 (10.6)	41.5 (△0.6)	41.7 (△4.8)	42.1 (△3.8)	39.7 (△14.0)	41.1 (△13.3)	45.9 (△3.7)	43.5 (△4.5)	40.8 (△1.3)	42.8 (0.7)	37.7 (△8.0)
메모리	21.8 (11.3)	18.8 (△2.8)	23.4 (2.6)	22.2 (△9.6)	22.1 (△15.3)	21.3 (△15.7)	18.2 (△31.1)	17.4 (△37.6)	18.6 (△30.0)	18.1 (△26.0)	17.3 (△14.4)	16.1 (△24.9)	14.7 (△32.5)
D램	11.5 (△16.2)	11.0 (△14.7)	12.8 (△14.8)	12.5 (△22.2)	12.5 (△28.7)	12.2 (△27.0)	10.1 (△43.3)	9.7 (△48.3)	9.5 (△45.5)	8.9 (△45.5)	8.5 (△33.1)	8.7 (△30.4)	8.0 (△30.8)
낸드	2.5 (20.8)	2.2 (8.3)	2.7 (10.9)	2.9 (13.9)	3.2 (34.8)	2.4 (1.3)	2.6 (8.4)	2.7 (9.4)	2.9 (28.2)	2.9 (35.9)	2.7 (18.6)	2.5 (△0.6)	1.9 (△22.1)
시스템 반도체	13.8 (37.1)	12.2 (16.5)	15.1 (22.5)	13.7 (11.7)	14.4 (11.0)	15.2 (15.0)	15.9 (12.8)	17.4 (22.3)	21.3 (39.4)	20.3 (34.8)	18.9 (21.2)	21.4 (39.1)	18.5 (33.4)

3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2012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1,301억 달러 전망

○ (대형 LCD 패널) 3D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수요 기대, 런던 올림픽 등의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회복 전망

※ 우리나라(2012년 12월), 영국(2012년 12월), 이탈리아(2012년), 호주(2013년 12월) 등을 비롯하여 OECD 33개국 중 28개국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예정

- 특히, 시장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패널 업체들의 대형 LCD 패널에 대한 설비 투자 축소 및 가동률 조정 등이 예상되고 있어 공급 과잉 등이 해소될 전망

- 다만, 기술적 진화(LCD→OLED), 3D 및 LED 패널의 저가화, 중국 패널 업체들의 생산량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하락폭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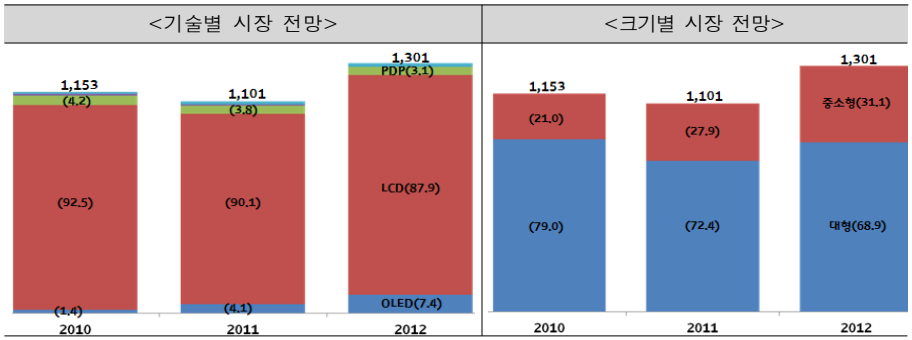
○ (중소형 패널) 스마트폰의 보급화 진전 및 교체 수요 확대, 태블릿PC 및 울트라북이 기존 노트북 시장을 대체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AMOLED 패널은 대만,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소형 패널에만 적용되었던 AMOLED는 2012년부터 TV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



자료 : DisplaySearch(2011.9), 주) ( )는 시장 비중

2) 수출 여건

▶ 미국 TV 시장 정체 등 선진국 수요 둔화와 중국 등 신흥 시장의 성장 여부가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

○ 유럽의 재정 위기 심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 미국의 TV 수요 둔화 등 선진국의 경제 위기는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의 고조로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하향 조정 등의 감산 노력은 수출 감소 및 국내 업체들의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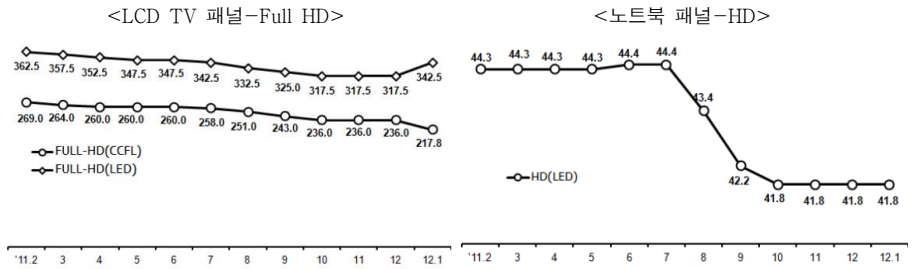
▶ LCD 패널 가격은 일부 품목에서는 전월대비 증가했으나, 대부분 TV, PC 등에서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작년 7월부터 지속된 TV 패널 등의 가격 하락은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LCD 패널 가격은 전년 10월부터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패널업체들이 적자축소를 위해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용인하지 않는 점, 세트 및 유통채널의 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다만, 최근 LCD TV(LED)용 패널 가격이 반등하여 향후 LCD 패널가격 회복을 기대

디스플레이 가격 동향(평균)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자료 : Witsview, 2012.1

▶ 국내 업체들은 안정적 수급 구조, 신제품 지속 출시, 원가 개선 노력 등 공격적인 시장 공략 등으로 대만 등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전망

- 선진 시장의 수요 둔화, 지속된 패널 가격 하락 등은 대만 업체들의 매출액 증대,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됨

- 안정적인 수요처, 제품 차별화, 원가 구조 개선 노력 등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

※ LCD 패널 세계시장점유율(DisplaySearch, %) : ('09) 52.7 → ('10) 51.3→ ('11.1Q) 51.1→ (2Q) 54.0→ (3Q) 53.6

3) 수출 동향

▶ 1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불안 및 선진국 시장의 구매력 저하 등에 따른 전방 수요 약세,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정책, LED 패널 등의 저가화 진행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11.2% 감소한 22.7억 달러

-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의 12.1%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품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한 2.8억 달러 기록

▶ (지역별) 전년 동월대비 3.7% 증가한 17.3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홍콩포함), 아프리카의 43.9% 증가(0.03억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출은 저조

- 특히,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EU(2.6억 달러, △14.2%), 미국(0.1억 달러, △48.5%) 등 선진 시장의 수요 둔화 및 선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산 거점인 남미(1.5억 달러, △44.9%), 동유럽(2.5억 달러, △12.9%)의 수출도 동반 감소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패널	25.6	22.6	27.0	26.3	27.0	26.4	25.2	25.2	27.6	29.2	26.6	25.3	22.7
(증감율)	(4.0)	(△3.3)	(△4.9)	(△7.3)	(△7.0)	(△8.3)	(△21.2)	(△21.2)	(△3.7)	(1.1)	(△2.5)	(△4.6)	(△11.2)
부분품	2.7	2.3	3.2	3.3	2.9	3.0	2.8	2.6	2.8	2.8	3.0	2.8	2.8
(증감율)	(△2.3)	(△14.6)	(△3.9)	(△9.6)	(△7.5)	(△3.8)	(△19.3)	(△14.9)	(1.2)	(4.1)	(5.4)	(△2.5)	(2.4)

4 TV

1) 시장 환경

▶ 3D TV 채널 운영으로 확대가 기대되는 중국 3D TV 시장

○ 새해 첫날을 기점으로 3D TV 채널 시범 방송 개시

- 중국 중앙방송(CCTV)과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선전 TV 등 6개 중앙·지방 방송국 공동으로 운영

※ 방송시간은 처음 4시간 30분 동안의 본방송과 이후 2번에 걸친 재방송을 포함하여 하루 13시간 30분(오전 10시 30분~밤 1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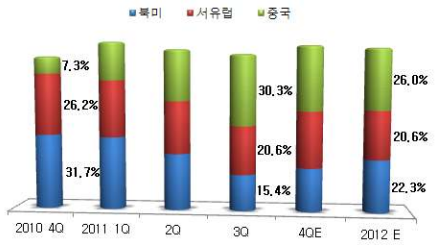
- CCTV는 지방 주요 방송국과 함께 콘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7월 말 런던 올림픽도 3D로 송출할 계획

○ 국내 기업의 매출증가 기대와 중국업체의 위상강화라는 우려가 공존

- 이미 세계 최대의 3D TV 시장으로 올라선 중국은 이번 조치로 수요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중국 3D TV 시장은 이미 기존 LCD TV 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

중국 3D TV 시장 현황 (매출기준)



< 세계 3D TV 시장: 주요 국/지역 비중 >

자료 : Witsview, 2011.12.

구분	'10. 4Q	'11. 3Q
중국 업체	21.6	72.4
일본 업체	53.5	15.8
한국 업체	24.9	11.7

< 중국 3D TV 시장 내 경쟁 현황 >

▶ Google, 국내업체 견제에 나서

○ CES 2012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구글TV

- Sony, Logitech과의 제휴로 추진했던 초기 Google TV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
- 이에 따라 Google은 기존 플랫폼의 단점(사용 편의성, 콘텐츠 부족)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보유한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 하에 2세대 Google TV를 추진하며 CES 2012에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해 CES를 통해 대부분의 TV 제조사들은 Google TV 개발 및 출시에 소극적인 반응

※ Sony의 Google TV는 기존 제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 삼성전자는 출시하지 않음

○ Google, 자사 스마트TV 플랫폼인 'Google TV'를 제외한 스마트TV 플랫폼에서는 구글서치 탑재를 금지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압박

- 스마트TV가 진화할수록 검색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의 향후 행보에 주목

2) 수출 여건

▶ 한국 TV업체들의 미국 시장 지배력 강화는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

○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TV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본 주요 4개 TV업체(Sony, Panasonic, Toshiba, Sharp)와의 점유율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11년 4분기 美평판TV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34%, 日주요 4개사는 1분기(27%)보다 소폭 하락한 24% 기록
- 한일 주요 기업간 점유율 격차는 특히 프리미엄 TV로 갈수록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LCD TV의 경우 한일 주요 기업간 점유율 격차는 8%p이나 LED TV로 가면 19%p, 그리고 3D LCD TV의 경우 47%p로 크게 확대

※ 美3D LCD TV 시장점유율('11년 1Q→4Q) : 삼성전자LG전자 56%→73%, 日4개사 43%→25%

- 美 3D LCD TV 시장에서의 한·일 주요 기업간 점유율 격차 확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꾸준한데 이어 LG전자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 또한, 일본 업체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하락하고 중국 업체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국내 기업 실적 확대의 요인

※ 삼성전자의 4분기 점유율은 46%로 1분기(4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LG전자의 점유율은 1분기 8%에서 4분기에는 27%로 크게 증가

▶ 판매량 확대를 위해 필름편광방식(FPR)을 채택하는 日업체들의 향후 3D TV 실적 주시 필요

○ 소니 등 일본 기업들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자국 시장의 급격한 위축, 엔화 강세와 한국 기업의 약진 등에 따른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열위 등으로 고전하며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

- 일본 6위 업체인 Hitachi는 오는 10월 평판TV 생산을 중단하고 위탁생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
- 일본의 대표적 TV 제조업체인 Sony, Panasonic, Toshiba 등도 이미 생산량을 줄이고 위탁 생산량을 늘리는 중

※ Sony : 세계 각국의 9개 생산 거점을 4개로 줄인 상태이며 대만 등에서의 위탁생산 비중 크게 확대. '11년 말에는 LCD TV 중기 판매 목표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

※ Panasonic : '11년 11월, 평판TV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본 내 생산설비 통폐합 발표

※ Toshiba : 최근까지 일본 내 공장 10곳 폐쇄

○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본 주요 TV 업체들은 최근 3D TV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FPR 방식 도입

- 현재 3D TV 구현 방식은 셔터글라스(SG)와 편광필름패턴(FPR)의 양강체제로 '11년 3분기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각각 63%, 37%

※ FPR 방식은 '11년부터 적용된 기술로 3분기만에 점유율 37% 도달은 매우 빠른 성장세

- Panasonic은 CES 2012에서 FPR 방식을 도입한 3D TV를 출시하였으며, Sony는 올 하반기에 FPR 방식의 3D TV를 생산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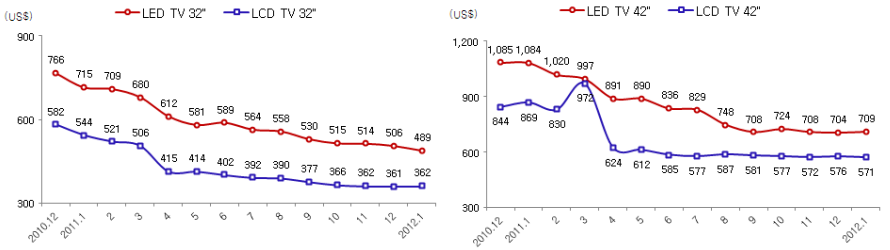
- 최근 지속적인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 TV 업체들의 FPR 방식 도입은 제품 원가 제고를 통해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FPR 방식의 TV 생산비용은 셔터글래스 방식 TV보다 10% 이상 저렴

▶ 메이저 기업들의 점유율 경쟁, 수요 확대를 위한 프리미엄 TV 가격 하락, 신흥 시장의 보급형 제품 수요 확대 등이 맞물리며 전년동월대비 30% 이상 가격 하락

- 전년동월대비 가격 하락률: LED TV 42" (△34.6%), LED TV 32" (△31.6%)

LCD TV / LED TV 가격 동향



자료 : Witsview, 2012.1.

3) 수출 동향

▶ 1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9% 줄어든 4.7억 달러로 집계

○ LCD TV 수출은 20%가 넘게 성장하였으나, 동월 수출의 82%를 차지한 부분품 수출이 30% 이상 하락하며 전체 TV 수출이 크게 하락

▶ (지역별) 미국(60.2%↑), 대양주(80.4%↑)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EU(△41.6%), 남미(△16.7%), 동유럽(△46.1%), 중국(△49.0%), 중동(△23.5%) 등에의 수출은 감소

○ 對미국 수출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對남미 수출이 전 월에 이어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對중국, 對EU, EU 수출 거점인 對동유럽 수출 역시 전 월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 지속

※ 對미국 수출 증가율 : '11.11월 74.0% → 12월 78.6% → '12년 1월 60.2%

※ 對남미 수출 증가율 : '11.11월 △17.2% → 12월 △17.2% → '12년 1월 △16.7%

※ 對중국 수출 증가율 : '11.11월 △11.9% → 12월 △27.4% → '12년 1월 △49.0%

※ 對EU 수출 증가율 : '11.11월 △20.2% → 12월 △30.1% → '12년 1월 △41.6%

※ 對동유럽 수출 증가율 : '11.11월 △26.5% → 12월 △39.5% → '12년 1월 △46.1%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칼라TV (부분품 포함)	6.4 (18.9)	5.9 (16.0)	7.1 (11.1)	6.3 (△8.6)	6.0 (△8.4)	6.4 (△2.0)	8.5 (22.0)	7.7 (10.2)	7.8 (18.1)	6.2 (0.1)	5.4 (△4.4)	4.3 (△17.6)	4.7 (△25.9)
LCD TV	0.5 (4.4)	0.5 (46.5)	0.6 (39.5)	0.7 (33.3)	0.7 (25.7)	0.8 (11.8)	0.9 (48.6)	0.9 (59.3)	0.8 (39.9)	0.7 (35.1)	0.8 (40.4)	0.5 (△1.3)	0.6 (20.3)
PDP TV	0.3 (31.0)	0.3 (56.1)	0.3 (28.1)	0.3 (8.2)	0.3 (△9.2)	0.2 (△12.8)	0.2 (△18.6)	0.3 (16.9)	0.3 (9.7)	0.3 (△14.4)	0.2 (△30.3)	0.2 (△13.7)	0.2 (△14.2)
TV 부분품	5.6 (20.9)	5.2 (12.9)	6.2 (8.6)	5.3 (△13.0)	5.0 (△11.2)	5.3 (△3.2)	7.4 (21.6)	6.5 (5.8)	6.6 (16.4)	5.2 (△2.4)	4.4 (△8.1)	3.7 (△19.2)	3.9 (△30.7)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 (PC) ’11년 4분기 세계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9,217만 대

○ 태블릿 PC의 확산이 연말 PC 시장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태국 홍수로 인한 HDD 품귀 현상이 일부 소형 제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HDD 재고 물량 부족 현상은 2012년 1분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2012년 상반기 PC 가격 상승 및 출하량 감소 전망

○ 전 세계 PC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미국과 EMEA(유럽 및 중동/아프리카)시장의 출하량 감소

- 미국의 4분기 PC출하량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및 E-reader 제품 등으로 소비자 관심이 분산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

- EMEA 지역은 2,890만 대 출하,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 서유럽 경제 불안으로 인한 PC 소비 위축이 성장 부진의 원인

○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중남미 지역의 성장이 ’11년 4분기 PC 시장을 지탱

- 아시아/태평양 지역 PC 출하량은 3,0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하였으나 중국, 인도, 태국의 출하량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중남미 지역은 930만대 출하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 기록

2011년 4분기 지역별 PC 시장규모 및 점유율

지역	시장규모(백만 대)			시장점유율	
	‘10. 4Q	‘11. 4Q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10. 4Q	‘11. 4Q
아시아/태평양	28.0	30.4	8.5%	30.0%	33.0%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32.1	29.0	△9.6%	34.3%	31.5%
미국	19.1	17.9	△5.9%	20.4%	19.5%
중남미	8.4	9.3	11.2%	9.0%	10.1%
일본	4.0	3.9	△2.3%	4.2%	4.2%
캐나다	2.0	1.7	△14.5%	2.1%	1.8%

자료 : Gartner, 2012.01

○ ’11년 4분기 HP와 Acer Group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Lenovo 고성장

- PC 사업부 분사 논란을 겪은 HP는 지난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 16.2% 감소, Acer는 18.4% 감소로 상위 업체 중 출하량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Lenovo는 가격경쟁력 및 유통채널 강화로 상위 PC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출하량 2위 기록

※ 애플의 미국 시장 내 PC 출하량, 전년 동기 대비 20.7% 상승

2011년 4분기 PC 업체별 세계시장점유율 [출하대수 기준, %]

순위	업체명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시장점유율	
			‘10_4Q	‘11_4Q
1	HP	△16.2%	18.8%	16.0%
2	Lenovo	23.0%	11.3%	14.0%
3	Dell	7.8%	11.6%	12.6%
4	Acer Group	△18.4%	12.9%	10.7%
5	Asus	20.5%	5.5%	6.8%

자료 : Gartner, 2012.01

▶ (태블릿PC) 태블릿PC 시장 성장률은 2011년 222%에서 2012년 59%로 둔화될 전망

○ 중저가 태블릿PC의 확산이 2012년 태블릿PC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블릿PC 평균 단가 하락과 함께 시장성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

○ 북미 시장의 태블릿PC 수요 및 보급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흥시장의 수요가 2012년 전체 태블릿PC 시장의 성장 폭을 결정할 것

※ 1월 현재, 미국 18세 이상 성인의 19%가 태블릿PC 또는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Pew Research, 2012.01)

▶ 신규 모바일 PC 제품 및 Windows 8 출시에 따른 선진시장 수요 창출에 주목

○ (울트라북) Intel은 삼성전자와 LG전자, Lenovo, HP, Toshiba, Compal, Asus, Acer의 제품을 포함하여 2012년 75개 이상의 울트라북 라인업을 확충하였음을 발표

- 2012년 울트라북 수요 형성 및 시장 성장은 1,000달러 미만 가격대의 제품 출시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

※ 울트라북 : 두께 20㎜ 미만, 무게는1㎏대, 가격대 1,000달러 이하이면서 오랜 배터리 구동 시간을 갖추고 인텔 i5나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인텔의 고성능 노트북을 일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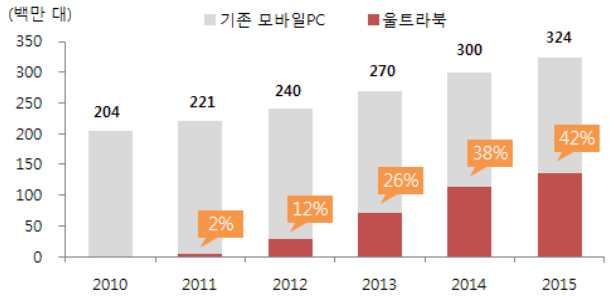
○ (올인원 PC) 올인원 PC는 심플한 디자인과 대형 스크린의 고화질 화면을 강점으로 데스크탑PC의 신규 교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올인원 PC :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하나로 합치고 LCD 터치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적 요소를 부각시킨 제품

※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올인원 PC '시리즈9 900A7A'를 출시

○ (Windows 8) 터치스크린 기반의 데스크탑 PC 및 모바일 PC에 최적화 된 Windows 8 출시로 PC 운영체제 변화에 따른 교체수요 발생 예상

세계 모바일 PC 시장규모 및 울트라북 점유율 전망



자료 : iSupplI (2011.4Q), Intel 관련 기사 참고

2) 수출 여건

▶ 안드로이드 태블릿PC 시장 내 킨들파이어의 선전, 갤럭시탭 점유율은 하락세

○ 모바일 분석 업체 Flurry에 따르면, 킨들파이어는 저렴한 가격과 풍성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12년 1월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의 36% 점유를 기록. '11년 11월 3%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3개월 만에 12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12년 1월 갤럭시탭의 안드로이드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은 킨들파이어와 같은 36%로 집계

※ (아수스) 트랜스포머 7%, (에이서) 아이코니아탭 7%, (모토로라) 줌 4% 등

▶ 삼성전자와 애플의 태블릿PC 특허소송 판결은 국가마다 상이, 양사 간 특허전쟁은 첨예하게 진행 중

○ 네덜란드 법원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애플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12.01.24)

○ 한편,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에 패소 판결, 이 판결이 '갤럭시탭 8.9' 제품에도 적용됨을 밝힘('12.01.27)

○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자인을 변경하여 출시한 새로운 제품 '갤럭시탭 10.1N' 판매에는 타격이 없다고 발표

▶ 2012년 세계 SSD 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SSD 수출에 긍정적 영향 예상

○ IDC에 따르면 2011년 세계 SSD 시장은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105% 성장한 50억 달러 규모. 2010-15년 연평균(CAGR) 5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SupplI의 2011년 세계 SSD 시장 규모 : 44억 1,200만 달러(전년 대비 약 90%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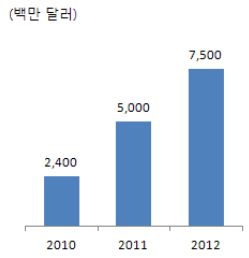
○ 2011년 전 세계 노트북용 SSD 시장규모는 약 1,400만 대, 삼성전자의 노트북용 SSD 판매(약 700만 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

※ 삼성전자는 2012년 노트북용 SSD 생산량 최대 2,000만 대를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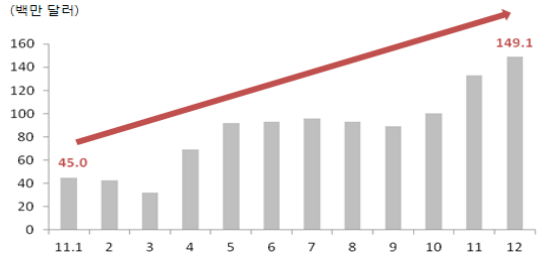
○ 울트라북 등 차세대 모바일 PC의 보조기억장치로 부상하고 있는 SSD는 2011년 10.3억 달러 수출, 전년 대비 1,262% 상승을 기록하며 수직 성장

세계 SSD 시장규모 및 우리나라 SSD 수출 증가 추이

< 세계 SSD 시장규모 >



< 2011년 우리나라 SSD 수출 증가 추이 >



자료 : IDC (2012.01), NIPA

3) 수출 동향

▶ 1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한 6.0억 달러 기록

○ 태블릿PC가 수출 성장을 견인(전년 동월 대비 11.5%↑)하면서 컴퓨터(부품포함) 부문 수출은 2.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2% 성장

- 특허 견제, 저가형 태블릿PC 제품의 공세 등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블릿PC 업체는 신규 제품 출시 및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강점으로 꾸준한 수출 성장 기록

○ 보조기억장치는 1.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

- SSD 수출은 고성장(1.1억 달러, 152.3%↑)을 기록하고 있는 한편, HDD 수출은 하락세 지속(0.1억 달러, △91.2%)

○ 프린터 부문 수출은(1.0억 달러, △10.5%) '11년 월 평균 수출액 수준 유지

○ 모니터 수출(1.4억 달러, △9.1%)은 부품 수출 감소로 감소세 지속

▶ (지역별) 아시아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동/아프리카 신흥시장 및 동유럽의 수요 증가가 선진시장 PC 수출 감소를 상쇄

○ 경제 침체로 인한 유럽(0.6억 달러, △30.3%) 지역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이 지속적인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 고성능 프리미엄PC 제품 및 태블릿PC를 중심으로 미국(1.0억 달러, 23.0%↑)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

○ 특히, ASEAN(0.8억 달러, 163.0%↑) 지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수출 상승에 기여, 중동(0.1억 달러, 30.8%↑) 및 아프리카(0.1억 달러, 71.1%↑) 동유럽(0.4억 달러, 59.3%↑)도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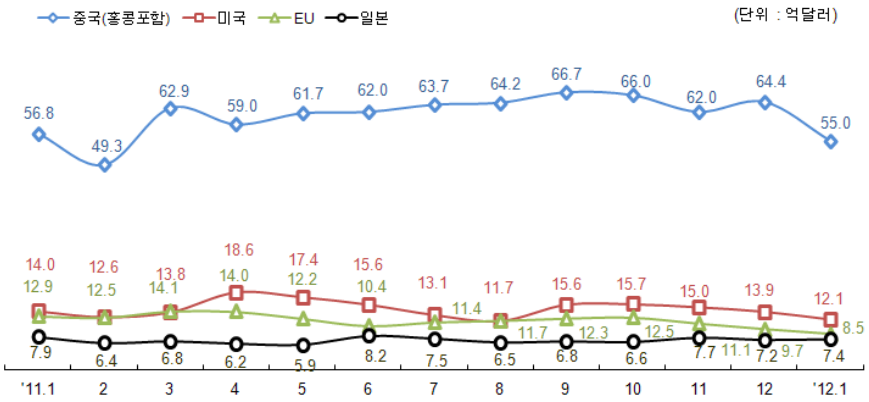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컴퓨터 및 주변기기	5.7	4.9	6.5	5.9	5.5	6.3	6.7	7.2	7.3	7.0	6.7	6.7	6.0
	(△6.3)	(△18.2)	(△6.7)	(△12.2)	(△11.8)	(△3.2)	(16.1)	(35.8)	(24.6)	(△4.0)	(△14.4)	(2.9)	(4.7)
컴퓨터 (부품포함)	1.4	1.2	2.2	1.7	1.2	1.8	2.4	2.8	2.9	2.5	1.9	1.6	2.0
	(9.2)	(△15.8)	(45.8)	(22.9)	(△11.5)	(△0.6)	(87.2)	(142.6)	(82.6)	(△6.8)	(△46.7)	(△19.1)	(42.1)
보조 기억장치	1.5	1.2	1.0	1.3	1.4	1.4	1.4	1.3	1.2	1.2	1.7	1.7	1.2
	(△20.5)	(△27.7)	(△42.1)	(△28.2)	(△12.2)	(8.5)	(8.2)	(△12.9)	(△18.5)	(△21.2)	(28.7)	(30.4)	(△16.9)
프린터	1.1	0.8	1.1	1.1	1.0	1.1	1.1	1.0	1.2	1.0	0.7	1.0	1.0
	(22.1)	(△10.3)	(20.8)	(5.2)	(11.1)	(10.4)	(10.3)	(11.4)	(21.6)	(△16.5)	(△21.1)	(1.6)	(△10.5)
모니터	1.5	1.4	1.7	1.5	1.5	1.6	1.5	1.8	1.7	1.9	1.8	1.7	1.4
	(△21.5)	(△18.0)	(△29.3)	(△33.0)	(△27.7)	(△27.0)	(△25.8)	(12.9)	(4.3)	(15.2)	(6.0)	(△7.4)	(△9.1)

3.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포함) : 55.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0% 감소

▶ 디스플레이 패널(17.3억 달러, 3.7%↑)을 제외한 휴대폰(3.2억 달러, △26.4%), 반도체(20.4억 달러, △6.4%), TV부분품(0.5억 달러, △49.4%)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

○ 이로써 '09년 6월 이후 31개월 만에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감소세 전환

중국(홍콩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금액		56.8	49.3	62.9	59.0	61.7	62.0	63.7	64.2	66.7	66.0	62.0	64.4	55.0
(증감률)		(8.5)	(5.6)	(9.3)	(3.5)	(5.5)	(5.0)	(2.2)	(2.6)	(8.7)	(9.8)	(6.3)	(11.6)	(△3.0)
	중국	43.0	38.3	47.4	44.3	47.4	48.1	49.6	48.7	50.5	48.9	46.8	48.5	42.1
		(2.4)	(4.9)	(3.5)	(△2.2)	(3.2)	(4.9)	(2.3)	(△1.0)	(7.0)	(3.1)	(2.8)	(10.4)	(△2.2)
	홍콩	13.7	11.0	15.5	14.7	14.3	13.9	14.1	15.5	16.1	17.1	15.1	15.8	13.0
		(33.1)	(7.9)	(31.9)	(25.5)	(13.7)	(5.7)	(1.6)	(15.9)	(14.5)	(34.7)	(18.6)	(15.6)	(△5.6)

2 미국 : 12.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3.7% 감소

▶ TV(0.3억 달러, 65.0%↑) 수출은 3D, 스마트 TV 등 고기능 제품 수출 호조로 증가를 기록한 반면, 휴대폰(5.1억 달러, △27.5%), 반도체(2.4억 달러, △10.9%), 디스플레이 패널(0.1억 달러, △48.5%)등 대부분 품목이 수출 감소세 기록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금액	14.0	12.6	13.8	18.6	17.4	15.6	13.1	11.7	15.6	15.7	15.0	13.9	12.1
(증감률)	(15.6)	(△4.3)	(△3.3)	(26.0)	(17.2)	(△0.1)	(△21.2)	(△20.4)	(△2.9)	(△18.5)	(△17.2)	(△9.1)	(△13.7)

3 EU : 8.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6% 감소

▶ 재정위기가 장기화 중인 EU는 휴대폰(1.2억 달러, △61.5%), 디스플레이 패널(2.6억 달러, △14.2%), 반도체(1.2억 달러, △51.1%), TV(1.6억 달러, △41.5%) 등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

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금액	12.9	12.5	14.1	14.0	12.2	10.4	11.4	11.7	12.3	12.5	11.1	9.7	8.5
(증감률)	(△2.3)	(△8.9)	(△9.6)	(△9.6)	(△23.2)	(△34.7)	(△25.9)	(△31.3)	(△23.4)	(△32.0)	(△32.8)	(△33.3)	(△33.6)

4 일본 : 7.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6.6% 감소

▶ 휴대폰 수출(3.0억 달러, 36.8%↑)은 스마트폰 수출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반면, 반도체(2.1억 달러, △23.9%), 디스플레이 패널(0.2억 달러, △72.0%) 등은 부진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금액	7.9	6.4	6.8	6.2	5.9	8.2	7.5	6.5	6.8	6.6	7.7	7.2	7.4
(증감률)	(53.1)	(22.2)	(10.8)	(7.0)	(△5.1)	(19.8)	(0.6)	(△2.6)	(6.3)	(△6.1)	(1.2)	(△9.7)	(△6.6)

5 기타 국가

▶ 중남미(5.5억 달러, △29.2%), 동유럽(5.6억 달러, △20.2%), 중동(2.9억 달러, △31.5%) 등 신흥시장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감소

3. 수입 및 수지 동향

▶ 1월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0.4% 감소한 62.5억 달러를 기록

○ 시스템반도체(16.6억 달러, 2.0%↑)와 국내 통신망 투자 확대로 네트워크장비(2.6억 달러, 26.9%↑) 수입은 증가했으나,

- 국내업체 스마트폰 및 노트북 경쟁력 강화로 외산 제품 수입 감소로 휴대폰(2.4억 달러, △59.6%), 컴퓨터 및 주변기기(7.4억 달러, △17.7%) 수입은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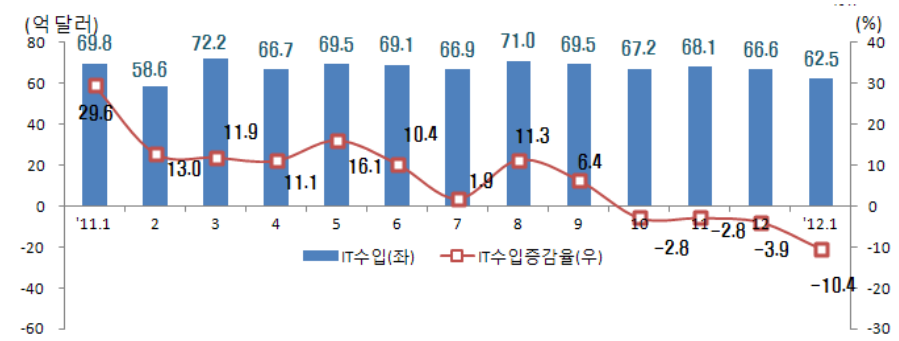
○ 중국(홍콩포함, 21.1억 달러, △22.1%), 일본(9.4억 달러, △3.4%), 싱가포르(3.5억 달러, △29.5%), 대만(8.4억 달러, △9.4%) 등 주요 수입국 모두 감소

'12.1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37.3	(△6.2)	7.4	(△17.7)	9.3	(8.0)	62.5	(△10.4)
중국(홍콩포함)	9.9	(△20.1)	5.0	(△18.8)	2.1	(△7.4)	21.1	(△22.1)
일본	6.3	(△4.1)	0.3	(△17.3)	1.9	(9.2)	9.4	(△3.4)
미국	4.5	(26.3)	0.3	(△22.7)	1.9	(14.1)	7.1	(13.5)
대만	7.1	(△4.2)	0.2	(3.9)	0.1	(△21.9)	8.4	(△9.4)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49.3억 달러 흑자로 비 IT산업 수지 적자를 상쇄(전체 수지: △19.6억 달러, 비 IT산업 수지 : △68.8억 달러)

IT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전체	24.8	20.7	25.3	43.5	21.3	19.2	46.6	3.7	12.7	39.1	30.5	34.0	△19.6
IT산업	58.4	53.0	62.6	66.2	63.9	63.1	63.1	59.2	70.9	70.0	61.3	59.4	49.3

○ **(품목별)** 휴대폰(12.0억 달러), 반도체(11.6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17.3억 달러)은 흑자 기조 지속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휴대폰	17.9	15.5	15.6	19.0	19.7	17.7	18.9	17.3	16.3	15.8	12.3	11.7	12.0
반도체	12.3	12.3	17.1	15.5	14.3	16.5	11.4	12.7	18.0	15.4	14.6	16.5	11.6
패 널	20.2	17.9	21.5	20.8	21.4	20.1	19.6	19.4	21.9	23.5	20.8	19.8	17.3
TV	6.1	5.8	6.9	6.1	5.9	6.2	8.4	7.6	7.5	6.1	5.3	4.2	4.6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33.9억 달러), 미국(5.0억 달러), EU(4.4억 달러) 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對일 적자는 2.0억 달러로 전월대비 감소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2.1
중국(홍콩)	29.7	27.7	34.6	34.0	34.9	36.0	39.8	37.4	41.4	43.1	35.4	40.9	33.9
EU	8.1	8.2	8.1	8.4	6.8	4.2	6.4	6.9	7.3	7.7	6.1	4.3	4.4
미국	7.8	7.3	7.4	12.4	10.0	9.0	6.0	4.0	7.8	7.7	7.4	6.2	5.0
일본	△1.8	△2.6	△3.8	△3.4	△3.6	△2.3	△3.2	△4.4	△4.1	△3.8	△1.9	△4.0	△2.0

4. 2012년 1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1996년	1,297.2	412.3		1,503.4	270.3		−206.2	142.0
1997년	1,361.6	414.6	0.6	1,446.2	291.3	7.8	−84.5	123.3
1998년	1,323.1	389.4	−6.1	932.8	221.2	−24.1	390.3	168.2
1999년	1,436.9	519.3	33.4	1,197.5	324.9	46.9	239.3	194.4
2000년	1,722.7	672.1	29.4	1,604.8	443.5	36.5	117.9	228.6
2001년	1,504.4	526.7	−21.6	1,411.0	355.4	−19.9	93.4	171.3
2002년	1,624.7	617.8	17.3	1,521.3	389.8	9.7	103.4	227.9
2003년	1,938.2	759.0	22.9	1,788.3	461.1	18.3	149.9	297.9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상반기	1,647.8	526.2	−23.0	1,453.9	280.8	−27.2	193.9	245.4
하반기	1,987.5	683.3	8.8	1,777.0	339.4	−2.9	210.5	343.9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1/4	1,010.8	344.1	47.2	981.6	170.3	34.0	29.3	173.8
2/4	1,202.4	384.0	31.3	1,056.3	182.6	18.8	146.1	201.4
상반기	2,213.2	728.1	38.4	2,037.9	352.9	25.6	175.4	375.2
3/4	1,163.2	403.9	21.3	1,057.0	194.8	14.1	106.2	209.2
4/4	1,287.5	407.4	16.3	1,157.3	208.6	23.7	130.2	198.8
하반기	2,450.6	811.3	18.7	2,214.3	403.3	18.8	236.4	408.0
2011년	**5,565.1**	**1,566.5**	**1.8**	**5,243.7**	**815.3**	**7.8**	**321.4**	**751.2**
1/4	1,309.8	374.7	8.9	1,239.1	200.7	17.8	70.8	174.0
2/4	1,426.9	398.6	3.8	1,342.9	205.3	12.5	84.0	193.2
상반기	2,736.7	773.2	6.2	2,581.9	406.0	15.1	154.8	367.2
3/4	1,412.3	400.6	−0.8	1,349.2	207.4	6.5	63.0	193.3
4/4	1,416.1	392.6	−3.6	1,312.6	201.9	−3.2	103.6	190.7
하반기	2,828.4	793.3	−2.2	2,661.8	409.3	1.5	166.6	384.0
2012년 1월	**415.4**	**111.8**	**−12.8**	**434.9**	**62.5**	**−10.4**	**−19.6**	**49.3**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3,941	27.3	100.0	156,648	1.8	100.0	11,179	−12.8	100.0
정보통신기기	138,756	26.4	90.1	136,909	−1.3	87.4	9,710	−15.2	86.9
○전자부품	91,302	45.6	59.3	89,133	−2.4	56.9	6,667	−8.3	59.6
− 반도체	50,707	63.4	32.9	50,145	−1.1	32.0	3,766	−8.0	33.7
· 메모리반도체	28,470	79.4	18.5	23,533	−17.3	15.0	1,472	−32.5	13.2
· 시스템반도체	16,093	30.9	10.5	19,957	24.0	12.7	1,846	33.4	16.5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27.3	21.9	31,381	−7.1	20.0	2,274	−11.2	20.3
− 전자관	279	−11.4	0.2	188	−32.7	0.1	4	−81.1	0.0
− 수동부품	1,599	39.0	1.0	1,605	0.4	1.0	108	−20.6	1.0
− 접속부품	4,201.5	32.6	2.7	4,868	15.9	3.1	416	11.7	3.7
− 기타전자부품	79	27.2	0.1	113	43.0	0.1	9	19.1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10.4	5.0	7,638	−0.9	4.9	601	4.7	5.4
− 컴퓨터	1,009	114.5	0.7	1,397	38.4	0.9	140	218.1	1.3
− 주변기기	5,418	2.9	3.5	5,081	−6.2	3.2	399	−4.4	3.6
· HDD	1,405	2.9	0.9	519	−63.1	0.3	7	−91.9	0.1
· 프린터	1,142	20.2	0.7	1,201	5.2	0.8	96	−10.5	0.9
· 모니터	2,307	−7.9	1.5	1,968	−14.7	1.3	140	−9.1	1.3
− 컴퓨터부품	1,091	1.8	0.7	958	−12.2	0.6	59	−38.6	0.5
− SW 및 콘텐츠	191	10.4	0.1	202	6.1	0.1	3	−81.8	0.0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10.3	18.0	27,811	0.1	17.8	1,650	−36.1	14.8
− 통신기기	27,526	−10.8	17.9	27,577	0.2	17.6	1,635	−36.3	14.6
· 유선통신기기	1,328	26.2	0.9	1,089	−18.0	0.7	73	−18.7	0.7
· 무선통신기기	26,198	−12.1	17.0	26,487	1.1	16.9	1,562	−36.9	14.0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13.2	16.2	25,050	0.7	16.0	1,440	−39.3	12.9
− 방송국용 기기*	247	111.1	0.2	234	−5.3	0.1	15	−1.7	0.1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30.4	6.8	10,709	2.1	6.8	681	−21.2	6.1
− 영상기기	8,025	39.9	5.2	8,307	3.5	5.3	504	−25.9	4.5
·TV	7,452	42.6	4.8	7,807	4.8	5.0	471	−25.9	4.2
LCD TV	649	15.6	0.4	852	31.4	0.5	60	20.3	0.5
TV 부분품	6,460	49.4	4.2	6,626	2.6	4.2	386	−30.7	3.5
− 음향기기	1,082	7.7	0.7	1,154	6.7	0.7	95	9.8	0.8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6.2	0.9	1,248	−9.5	0.8	83	−15.4	0.7
· 셋탑박스	762	12.2	0.5	579	−24.0	0.4	31	−34.4	0.3
○광자기매체	1,487	34.8	1.0	1,618	8.8	1.0	110	−32.4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36.3	9.9	19,740	30.0	12.6	1,469	7.1	13.1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51.6	2.6	5,283	33.9	3.4	424	24.5	3.8
○가정용 기기	4,510	21.2	2.9	4,762	5.6	3.0	346	−18.2	3.1
· 냉장고	2,318	29.9	1.5	2,483	7.1	1.6	181	−20.3	1.6
· 세탁기	685	5.8	0.4	655	−4.4	0.4	40	−32.9	0.4
· 에어컨	286	11.9	0.2	342	19.5	0.2	28	−17.5	0.3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6.9	0.3	483	8.6	0.3	28	−13.1	0.3
○전기 장비	6,284	40.7	4.1	9,212	46.6	5.9	671	16.5	6.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28.3	2.7	4,938	20.9	3.2	190	−45.4	1.7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75,619	21.9	100.0	81,531	7.8	100.0	6,254	−10.4	100.0
정보통신기기	65,144	21.4	86.1	69,668	6.9	85.4	5,328	−13.0	85.2
○전자부품	44,363	18.8	58.7	46,590	5.0	57.1	3,731	−6.2	59.7
− 반도체	31,137	17.0	41.2	32,482	4.3	39.8	2,609	−8.8	41.7
· 메모리반도체	6,048	46.2	8.0	6,781	12.1	8.3	458	−31.9	7.3
· 시스템반도체	18,442	4.1	24.4	19,079	3.5	23.4	1,664	2.0	26.6
− 평판디스플레이	6,496	21.7	8.6	6,691	3.0	8.2	546	0.7	8.7
− 전자관	118	−24.4	0.2	80	−32.6	0.1	5	−49.1	0.1
− 수동부품	1,707	28.3	2.3	1,828	7.1	2.2	146	−2.7	2.3
− 접속부품	3,685	26.0	4.9	4,101	11.3	5.0	319	3.1	5.1
− 기타전자부품	132	52.1	0.2	269	102.8	0.3	26	74.4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9,347	29.5	12.4	9,292	−0.6	11.4	739	−17.7	11.8
− 컴퓨터	3,078	57.4	4.1	3,241	5.3	4.0	291	−13.5	4.7
− 주변기기	3,429	19.8	4.5	3,641	6.2	4.5	313	−5.6	5.0
· HDD	770	19.9	1.0	773	0.4	0.9	52	−24.3	0.8
· 프린터	1,066	23.8	1.4	1,229	15.3	1.5	123	22.4	2.0
· 모니터	1,002	17.2	1.3	913	−8.9	1.1	84	−20.8	1.3
− 컴퓨터부품	2,248	22.4	3.0	1,810	−19.5	2.2	123	−33.3	2.0
− SW 및 콘텐츠	592	5.5	0.8	599	1.2	0.7	12	−74.2	0.2
○통신 및 방송기기	6,892	25.2	9.1	9,526	38.2	11.7	554	−35.1	8.9
− 통신기기	6,756	25.0	8.9	9,374	38.7	11.5	542	−35.9	8.7
· 유선통신기기	1,504	7.4	2.0	2,404	59.8	2.9	167	0.8	2.7
· 무선통신기기	5,252	31.2	6.9	6,970	32.7	8.5	375	−44.8	6.0
휴대폰(부분품 포함)	4,279	37.2	5.7	5,282	23.4	6.5	236	−59.6	3.8
− 방송국용 기기*	136	33.5	0.2	153	12.2	0.2	12	37.5	0.2
○영상 및 음향기기	2,890	11.4	3.8	2,724	−5.7	3.3	199	−17.2	3.2
− 영상기기	940	9.1	1.2	834	−11.3	1.0	59	−30.7	0.9
·TV	198	1.8	0.3	198	−0.3	0.2	16	−34.1	0.3
LCD TV	17	27.8	0.0	54	208.7	0.1	5	−40.9	0.1
TV 부분품	152	1.8	0.2	136	−10.4	0.2	8	−43.1	0.1
− 음향기기	1,368	8.7	1.8	1,404	2.6	1.7	110	−2.8	1.8
− 기타 영상음향기기	581	23.1	0.8	487	−16.3	0.6	30	−28.4	0.5
· 셋탑박스	108	298.8	0.1	124	15.1	0.2	7	−17.4	0.1
○광자기매체	1,652	67.9	2.2	1,535	−7.0	1.9	105	−31.4	1.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476	25.0	13.9	11,863	13.2	14.6	926	8.0	14.8
○의료정밀광학기기	7,101	31.5	9.4	8,028	13.1	9.8	634	12.5	10.1
○가정용 기기	899	19.6	1.2	1,123	24.9	1.4	87	21.8	1.4
· 냉장고	83	19.5	0.1	89	7.2	0.1	6	41.0	0.1
· 세탁기	71	32.7	0.1	57	−19.2	0.1	5	−12.3	0.1
· 에어컨	32	14.2	0.0	92	189.2	0.1	7	72.1	0.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36	−20.7	0.2	105	−23.0	0.1	11	34.8	0.2
○전기 장비	2,339	13.8	3.1	2,607	11.4	3.2	194	−9.6	3.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66	12.5	1.5	1,315	12.8	1.6	72	−36.4	1.1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56,648	81,531	75,117	11,179	6,254	4,925
정보통신기기	138,756	65,144	73,612	136,909	69,668	67,241	9,710	5,328	4,383
○전자부품	91,302	44,363	46,939	89,133	46,590	42,543	6,667	3,731	2,936
- 반도체	50,707	31,137	19,570	50,145	32,482	17,663	3,766	2,609	1,157
· 메모리반도체	28,470	6,048	22,422	23,533	6,781	16,752	1,472	458	1,014
· 시스템반도체	16,093	18,442	-2,349	19,957	19,079	878	1,846	1,664	182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6,496	27,276	31,381	6,691	24,690	2,274	546	1,729
- 전자관	279	118	161	188	80	108	4	5	-1
- 수동부품	1,599	1,707	-108	1,605	1,828	-223	108	146	-38
- 접속부품	4,202	3,685	517	4,868	4,101	767	416	319	97
- 기타전자부품	79	132	-53	113	269	-155	9	26	-17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9,347	-1,639	7,638	9,292	-1,654	601	739	-138
- 컴퓨터	1,009	3,078	-2,069	1,397	3,241	-1,845	140	291	-151
- 주변기기	5,418	3,429	1,989	5,081	3,641	1,440	399	313	86
· HDD	1,405	770	635	519	773	-254	7	52	-45
· 프린터	1,142	1,066	76	1,201	1,229	-28	96	123	-26
· 모니터	2,307	1,002	1,304	1,968	913	1,056	140	84	56
- 컴퓨터부품	1,091	2,248	-1,157	958	1,810	-853	59	123	-64
- SW 및 콘텐츠	191	592	-401	202	599	-397	3	12	-9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6,892	20,881	27,811	9,526	18,285	1,650	554	1,096
- 통신기기	27,526	6,756	20,769	27,577	9,374	18,203	1,635	542	1,093
· 유선통신기기	1,328	1,504	-176	1,089	2,404	-1,314	73	167	-94
· 무선통신기기	26,198	5,252	20,945	26,487	6,970	19,517	1,562	375	1,187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4,279	20,610	25,050	5,282	19,769	1,440	236	1,204
- 방송국용 기기*	247	136	111	234	153	82	15	12	3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2,890	7,596	10,709	2,724	7,985	681	199	482
- 영상기기	8,025	940	7,085	8,307	834	7,473	504	59	445
·TV	7,452	198	7,254	7,807	198	7,609	471	16	456
LCD TV	649	17	631	852	54	798	60	5	55
TV 부분품	6,460	152	6,308	6,626	136	6,490	386	8	378
- 음향기기	1,082	1,368	-286	1,154	1,404	-250	95	110	-1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581	798	1,248	487	761	83	30	52
· 셋탑박스	762	108	654	579	124	455	31	7	24
○광자기매체	1,487	1,652	-165	1,618	1,535	82	110	105	6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10,476	4,710	19,740	11,863	7,877	1,469	926	543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7,101	-3,155	5,283	8,028	-2,745	424	634	-210
○가정용 기기	4,510	899	3,611	4,762	1,123	3,639	346	87	259
· 냉장고	2,318	83	2,235	2,483	89	2,394	181	6	175
· 세탁기	685	71	614	655	57	598	40	5	36
· 에어컨	286	32	254	342	92	250	28	7	2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136	309	483	105	378	28	11	17
○전기 장비	6,284	2,339	3,945	9,212	2,607	6,605	671	194	47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1,166	2,917	4,938	1,315	3,622	190	72	118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53,941	27.3	100.0	156,648	1.8	100.0	11,179	-12.8	100.0
○ 아시아	99,239	35.2	64.5	106,480	7.3	68.0	7,969	-7.0	71.3
- 중 국	54,319	38.1	35.3	56,162	3.4	35.9	4,210	-2.2	37.7
- 홍 콩	15,010	39.0	9.8	17,682	17.8	11.3	1,295	-5.6	11.6
- 일 본	7,851	18.7	5.1	8,366	6.6	5.3	736	-6.6	6.6
- ASEAN	13,809	29.4	9.0	15,190	10.0	9.7	1,192	-7.5	10.7
· 싱가폴	5,643	20.2	3.7	5,821	3.2	3.7	466	-0.9	4.2
· 인 니	952	8.6	0.6	864	-9.3	0.6	56	-35.3	0.5
· 말 련	2,415	23.1	1.6	2,046	-15.3	1.3	115	-50.9	1.0
· 태 국	1,136	14.5	0.7	1,154	1.6	0.7	59	-34.3	0.5
- 대 만	6,420	45.7	4.2	6,985	8.8	4.5	409	-35.4	3.7
- 인 도	1,537	16.4	1.0	1,682	9.4	1.1	104	-33.5	0.9
○ 북미	19,588	16.8	12.7	18,872	-3.7	12.0	1,278	-13.0	11.4
- 미 국	18,508	15.9	12.0	17,721	-4.3	11.3	1,209	-13.7	10.8
- 캐나다	879	39.3	0.6	933	6.1	0.6	43	-15.6	0.4
○ 유럽	21,132	12.6	13.7	16,804	-20.5	10.7	996	-32.5	8.9
- EU	18,787	10.3	12.2	14,485	-22.9	9.2	854	-33.6	7.6
· 영 국	1,496	-13.0	1.0	1,068	-28.6	0.7	50	-53.7	0.4
· 독 일	3,302	13.5	2.1	2,460	-25.5	1.6	117	-36.8	1.0
· 프랑스	931	-23.9	0.6	701	-24.8	0.4	35	-56.4	0.3
· 이탈리아	755	28.7	0.5	557	-26.2	0.4	21	-72.3	0.2
- 러시아	1,535	43.2	1.0	1,338	-12.8	0.9	93	-14.4	0.8
○ 중동	3,876	28.6	2.5	4,394	13.4	2.8	295	-31.5	2.6
- 사우디	429	6.7	0.3	600	39.7	0.4	23	-57.0	0.2
- UAE	1,269	45.4	0.8	1,427	12.5	0.9	92	-50.7	0.8
○ 중남미	8,420	13.3	5.5	8,436	0.2	5.4	546	-29.2	4.9
- 브라질	2,429	21.0	1.6	2,826	16.3	1.8	210	-5.7	1.9
- 멕시코	5,188	5.9	3.4	4,669	-10.0	3.0	278	-42.8	2.5
- 칠 레	195	5.1	0.1	214	9.7	0.1	11	-41.1	0.1
○ 대양주	1,020	2.8	0.7	1,011	-0.9	0.6	56	-12.6	0.5
- 호 주	944	4.2	0.6	911	-3.5	0.6	49	-14.8	0.4
○ 아프리카	635	11.6	0.4	636	0.1	0.4	39	-11.4	0.3
○ 브 릭 스	59,821	36.8	38.9	62,007	3.7	39.6	4,617	-3.7	41.3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75,619	21.9	100.0	81,521	7.8	100.0	6,254	−10.4	100.0
○ 아시아	60,819	23.7	80.4	65,066	7.0	79.8	4,974	−13.0	79.5
− 중 국	26,311	32.4	34.8	29,116	10.7	35.7	2,067	−21.3	33.0
− 홍 콩	950	32.9	1.3	1,066	12.2	1.3	44	−48.4	0.7
− 일 본	11,952	15.7	15.8	12,243	2.4	15.0	936	−3.4	15.0
− ASEAN	11,858	4.3	15.7	12,083	1.9	14.8	798	−27.8	12.8
· 싱가폴	5,255	−11.1	6.9	5,509	4.9	6.8	348	−29.5	5.6
· 인 니	415	40.5	0.5	446	7.3	0.5	27	−22.7	0.4
· 말 련	2,689	18.8	3.6	2,730	1.5	3.3	207	−15.1	3.3
· 태 국	1,556	19.8	2.1	1,513	−2.8	1.9	74	−51.1	1.2
− 대 만	9,698	41.7	12.8	10,159	4.8	12.5	845	−9.4	13.5
− 인 도	43	14.4	0.1	51	18.8	0.1	3	2.7	0.0
○ 북미	8,068	17.7	10.7	8,799	9.1	10.8	742	14.0	11.9
− 미 국	7,660	19.1	10.1	8,410	9.8	10.3	706	13.5	11.3
− 캐나다	234	4.5	0.3	204	−12.8	0.3	10	−28.3	0.2
○ 유럽	5,733	14.0	7.6	6,655	16.1	8.2	448	−12.9	7.2
− EU	5,134	12.9	6.8	6,204	20.8	7.6	415	−13.3	6.6
· 영 국	391	10.6	0.5	462	18.1	0.6	28	−1.3	0.5
· 독 일	2,341	20.8	3.1	2,552	9.0	3.1	172	−10.0	2.7
· 프랑스	660	−9.8	0.9	648	−1.7	0.8	40	−29.9	0.6
· 이탈리아	260	15.7	0.3	260	−0.2	0.3	19	−8.5	0.3
− 러시아	89	128.7	0.1	19	−78.4	0.0	1	−55.5	0.0
○ 중동	434	−12.4	0.6	333	−23.2	0.4	44	26.0	0.7
− 사우디	1	449.8	0.0	1	−38.5	0.0	0	−96.5	0.0
− UAE	4	−37.1	0.0	14	223.4	0.0	2	429.4	0.0
○ 중남미	441	21.5	0.6	525	19.0	0.6	35	−19.2	0.6
− 브라질	16	−6.8	0.0	35	118.0	0.0	1	−1.3	0.0
− 멕시코	420	22.1	0.6	483	15.0	0.6	34	−18.9	0.5
− 칠 레	2	236.2	0.0	1	−57.9	0.0	0	−96.6	0.0
○ 대양주	107	16.3	0.1	127	18.4	0.2	8	−43.1	0.1
− 호 주	95	15.7	0.1	114	19.9	0.1	8	−41.7	0.1
○ 아프리카	17	58.0	0.0	13	−24.6	0.0	2	75.2	0.0
○ 브 릭 스	26,459	32.6	35.0	29,221	10.4	35.8	2,071	−21.3	33.1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56,648	81,531	75,117	11,179	6,254	4,925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106,480	65,031	41,450	7,969	4,974	2,995
− 중 국	39,344	19,868	19,476	56,162	29,267	26,895	4,210	2,067	2,143
− 홍 콩	10,802	715	10,087	17,682	1,093	16,589	1,295	44	1,251
− 일 본	6,617	10,333	−3,716	8,366	12,266	−3,900	736	936	−200
− ASEAN	10,673	11,369	−696	15,190	12,152	3,038	1,192	798	394
· 싱가폴	4,693	5,912	−1,219	5,821	5,561	260	466	348	118
· 인 니	876	295	581	864	446	418	56	27	29
· 말 련	1,963	2,263	−300	2,046	2,732	−686	115	207	−92
· 태 국	992	1,299	−306	1,154	1,513	−359	59	74	−15
− 대 만	4,407	6,845	−2,438	6,985	10,184	−3,199	409	845	−435
− 인 도	1,320	38	1,283	1,682	51	1,630	104	3	101
○ 북미	16,764	6,855	9,909	18,872	8,816	10,056	1,278	742	536
− 미 국	15,973	6,433	9,540	17,721	8,427	9,294	1,209	706	503
− 캐나다	631	224	407	933	205	728	43	10	32
○ 유럽	18,759	5,029	13,730	16,804	6,678	10,126	996	448	548
− EU	17,037	4,548	12,489	14,485	6,226	8,260	854	415	439
· 영 국	1,718	353	1,365	1,068	462	606	50	28	21
· 독 일	2,910	1,938	972	2,460	2,556	−96	117	172	−55
· 프랑스	1,224	731	492	701	649	51	35	40	−5
· 이탈리아	587	225	362	557	261	296	21	19	2
− 러시아	1,071	39	1,033	1,338	20	1,318	93	1	92
○ 중동	3,013	495	2,518	4,394	336	4,059	295	44	250
− 사우디	402	0	402	600	1	599	23	0	23
− UAE	873	7	866	1,427	15	1,412	92	2	90
○ 중남미	7,435	363	7,072	8,436	525	7,911	546	35	511
− 브라질	2,008	17	1,991	2,826	35	2,791	210	1	210
− 멕시코	4,897	344	4,553	4,669	483	4,187	278	34	244
− 칠 레	185	0	185	214	1	213	11	0	11
○ 대양주	992	92	900	1,011	129	882	56	8	48
− 호 주	906	83	823	911	117	794	49	8	41
○ 아프리카	569	11	558	636	13	623	39	2	37
○ 브 릭 스	43,744	19,962	23,782	62,007	29,373	32,633	4,617	2,071	2,546